

아흔 한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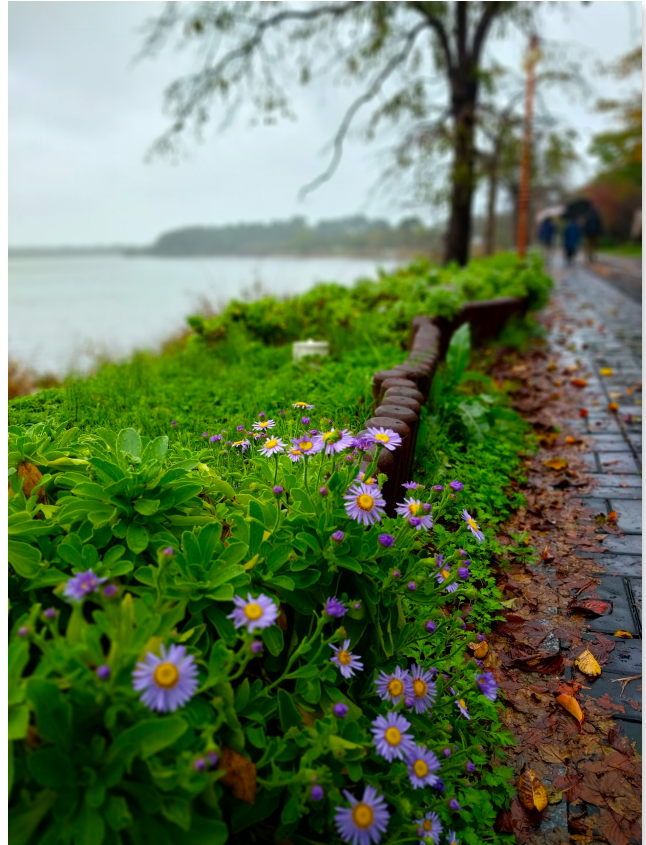
다솜이 차오르는 해돋이네 이야기

<페트리코르 (Petrìchor)>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코의 점막과 폐부를 관통하는 향이 납니다. 저는 이 향을 유독 좋아하는데요. 이 향을 맡을 때면 깊고 아련한, 지나간 마음 하나를 꺼내보며 눈물이 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 향기를 뿜어내는 정체는 **비가 아닌, 땅**이라는 것ですよ. 건기엔 특정 식물들이 발산하는 기름기가 흙과 암석에 흡수된다고 해요.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기름기가 ‘지오스민 (geosmin)’이라는 물질과 함께 공기 중으로 확산하며 ‘비 냄새’인 **페트리코르**를 퍼뜨리는 거죠. 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튀어 오르며 지오스민을 작은 공기 방울 안에 가두어 공기 중에 운반하고요, 바람이 방울을 분산시킨답니다.

그런데요, **가벼운 비가 강한 비보다 더 많은 페트리코르를 생성**시킨다고 해요. 부드러운 빗방울은 표면에 천천히 닿아 기포를 효율적으로 가두고 방출한다는 거죠. 오히려 폭우는 너무 많은 물이 빠르게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네요. 가벼운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는 첫 몇 분 동안 가장 진한 ‘비 냄새’를 맡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날 선 소나기보다 미세한 가랑비에 옷이 젖고, 은근하게 스며든 마음이 더욱 깊은 연유와 같음이겠죠. 호전성과 용맹함이 추앙받는 세상에서, 야단스럽지 않고 여리되 그윽한 정취를 가진 힘을 봅니다. 또한, 가벼운 빗방울이 가진 힘을 배웁니다.

지나간 그리고 펼쳐질 이야기

이야기 하나 ✿ 지난 6월 17-23일, 제 파송교회인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세계선교주간**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레 선교사 한 명 한 명의 구획을 꾸미고 한 달여간 선교주간을 준비하신 세계선교위원들의 재능과 성실함이 빛나던 한 주였지요. 선교사들의 사역과 모습을 최대한 많이 알리려 애쓰심이 가득 담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밤 9시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학생들의 모습이 꽤 많이 보이는 것이 놀라웠지요. 특히 쫓르륵 앞자리에 웅기종기 앉은 중학교 여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긴 시간 지루함 없이 (졸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기특함을 넘어 감사가 일었지요. 하나님께서 설교 중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전하는 소리 중 한 문장 혹은 단 한 단어라도 저 아이들에게 힘의 파장이 된다면, 하여 고난 가운데도 경쾌한 빛남이 될 수 있다면, 그 자리의 네 소명을 다한 것.”이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며 다가온 수줍던 아이들, 그리고 선한 수고를 마다치 않은 선교위원들과 그날의 마음을 사진에 남겼습니다. 이분들 그리고 아이들이야말로 강력한 향기의 페트리코르를 생성시키는 ‘여린 비’가 아닐까요?

이야기 둘 ✿ 마산종족 성경봉헌식 취재 글을 읽어보시겠어요? 지난 편지에는 핵심만 적었다면 책에는 마산종족을 위하여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난곳방언으로 7/8월 호**에 실린 **<마산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빠세반>**을 읽으실 수 있고요, 오디오 링크를 누르시면 제 목소리로 녹음된 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난곳방언으로 → http://www.gbt.or.kr/app/bbs/board.php?bo_table=news3)

이야기 셋 ✿ 초창기 발간부터 현재까지 <난 곳 방언으로>에 게재되었던 원고 중, 보관과 홍보에 적절히 사용할 만한 225개 글의 윤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GBT 아카이브의 일환인 성경 번역 선교의 역사 기록을 남기는 뿌듯한 숙제를 이어갑니다.

이야기 넷 ✿ <난 곳 방언으로> 2026년 5/6월 호와 7/8월 호 글들을 윤색하여 출간 발송했고, 현재는 9/10월 호 글들을 윤색 중입니다. 변함없이 <난 곳 오디오북>도 녹음 중이고요.

해돋이네는요

아이들은 어찌나 빨리 크는지, 마치 장맛비에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는 가로수 같아요. 1호 다린이는 의젓한 6살 K장녀의 면모를 뽐내며 동생들 기강도 잡고,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고, 덧셈 뺄셈 암산 연습을 하느라 매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호 현이는 드디어 변신로봇에 눈을 떠서는 30초에 한 번씩 변신 장난감을 로보트로 변신 시켜달라, 다시 자동차로 변신 시켜달라며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하는 귀염둥이예요. 3호 온이는 어



느새 10개월 형아가 되었답니다. 놀라운 건, 생김새나 체구도 셋 중에 가장 외할아버지를 빼닮았는데, 어쩔 가만가만 온 집안을 누비며 눈 깜짝할 새에 사고를 치는 것까지 닮아버려 해든이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온이가 외할아버지의 고집도 쏙 빼닮아 조금 골머리라지만, 아이들 모두 그저 건강하고 예의 바르게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왁자지껄 다둥이네랍니다.

지훈이는 벌써 복직 3개월 차입니다. 왕복 세 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이 참 고될 법도 한데, 여전히 새벽 출근 전에 아내를 위해 집을 정리해 주고, 퇴근 후엔 한달음에 달려와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며, 치카치카는 아빠와 함께!를 외치는 정말 듬직한 남편, 최고의 아빠랍니다. 해든이 또한 이제 세 아이 정도는 혼자서도 손쉽게 다루는 모습이 꽤나 멋져요. 본인 말로는 군인과 마피아 보스 사이 어딘가의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네요 하하하.

이제 곧 큰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든이가 아이들에게 외할머니댁에 놀러 가자 했다는데, 얼마나 왁자지껄 시끌벅적할지 벌써부터 기대 반 긴장 반이에요.

함께 손 모아 주세요

1. 잘 듣고 잘 말하며 자애로운 마음을 갖도록 / 침묵 중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매일 갖도록 / 주님이 지니신 '진짜 자비'를 배우도록 / 몸의 약한 부위들이 날로 건강해지도록
2.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미루지 않고 이행하는 성실을 주시도록
3. GBT 역사가 담긴 문서를 포함한 모든 원고를 유익하며 흥미로운 자료가 되게끔 윤색 및 기록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 <난곳 방언으로 오디오북>을 통해 독자층이 확장되도록 / <난곳 방언으로 / GBT격월간지>에 실릴 원고들을 수정하고 윤색하는 과정에 지혜 주셔서 원본의 내용을 잘 살리는 정갈한 글이 되도록
4. 선교사들의 위기 상황에 맞게 감정적 응급처치를 적절히 진행하는 따뜻한 전문 디브리퍼가 되도록
5. 해든의 몇 년째 지속된 수면부족으로 생기는 염증들이 가라앉고 아이들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 지훈의 출퇴근 길을 지키시고 일도 관계도 지혜롭고 행복하게 해내도록 / 다린이와 현이 온이가 나이에 맞게 자라 영, 육, 혼, 사회성 모두가 골고루 견비된 자녀들 되도록 / 가족 모두 잘 형성된 애착관계로 사랑이 충만하며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6. 파송 교회인 **거룩한 빛 온정교회**와 따뜻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솜

.....
ha-nei_kim@gbt.or.kr /
gbtwriter@gbt.or.kr

GBT 본부

.....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T) 031-421-5324

홈페이지) www.gbt.or.kr

이번 3개월은 쉬엄쉬엄 건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봉헌식을 다녀온 이후 원고 집필과 여러 바쁜 일정 등으로 피곤이 겹쳤는지 석 주 정도를 몹시 앓았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열과 근육통이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서 이번엔 꽤 걱정스러웠지요. 기침도 가래도 재채기도 없이 그저 고열과 근육통만 있는 기이한 증상들. 이번에 앓으며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어, 이상하다...”였을 정도니까요. 큰 병은 아닐까, 쓸데없는 염려와 함께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 그리고 남편 차선교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새삼스레 극진히 간호하며 24시간을 돌봤건만,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이 두려움을 혼자 견뎌야 하는구나, 라는 쓸쓸한 마음도 들면서요. 그런데, 혼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덮어버릴 때쯤 나를 돌보는 다정한 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퇴근길, 며칠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상태를 살피며 살뜰히 챙겨준 의사 친구. 노랗게 핀 어여쁜 꽃을 한 아름 보내 준 후배. 그 꽃이 시들 때쯤 장미꽃 한 다발을 품에 안겨준 동료. 죽이며, 고기며, 김치에 과일까지 잘 먹고 어서 나으라고 바리바리 가져다준 친구들. 그뿐인가요? 이런 때는 누워서 재미난 것 보는 게 최고라며 영화도 추천해 주고, 입을 책도 보내 준 건 또 어떻고요. 매일 차도를 묻고 기도해 주신 이들과 내 아이들, 그리고 제겐 엄마와 같은 분께서 입맛 당기는 것 먹고 몸보신 하라며 용돈을 보내 주시기도 했지요.

하나님께 살짝 섭섭해지려 할라치면 한 번도 나를 버려둔 적 없었음을, 나의 다정한 이들을 통해 기억나게 합니다. 제 편지를 받아 보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다정한 이들이시고요. 이렇듯 ‘나의 다정한 이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충(緩衝)해 주고 계세요. 표현할 길 없는 고마운 마음 지니고서 앞으로도 기쁘게 잘 살아 보겠습니다.

가을별이 길게 누운 10월에 찾아뵙게요.

김다솜 드림

